

과목명: 재무관리



담당교수: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정호일

주교재: 현대재무관리(저자: 장영광)

제8장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APM)

1.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2. 위험투자안에 대한 투자결정
3. 차익가격결정모형 (APT)

< 학습목표 >

- CAPM 의 의의
-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의 차이
- 총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의 구분
-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충관계와 CAPM의 투자결정에의 이용법
- APM의 의의와 차익거래 개념

1.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1) 의의와 가정

1) **CAPM** : 자본자산이 균형상태일때 적정가격?

2) **CAPM**의 재무의사결정에의 활용 분야

①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

② 위험 실물투자안의 요구수익률 추정과 투자결정

③ 과소.과대평가된 증권의 선별

④ 주주의 기회투자수익률과 주식의 내재가치 추정

⑤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투자성과 평정

By **W.S. Sharpe(1964), J. Lintner(1965), Mossin(1965)**

- 가정

- ① (평균 분산 기준) 의 가정

- ② (동질적) 미래예측의 가정

- ③ (완전) 시장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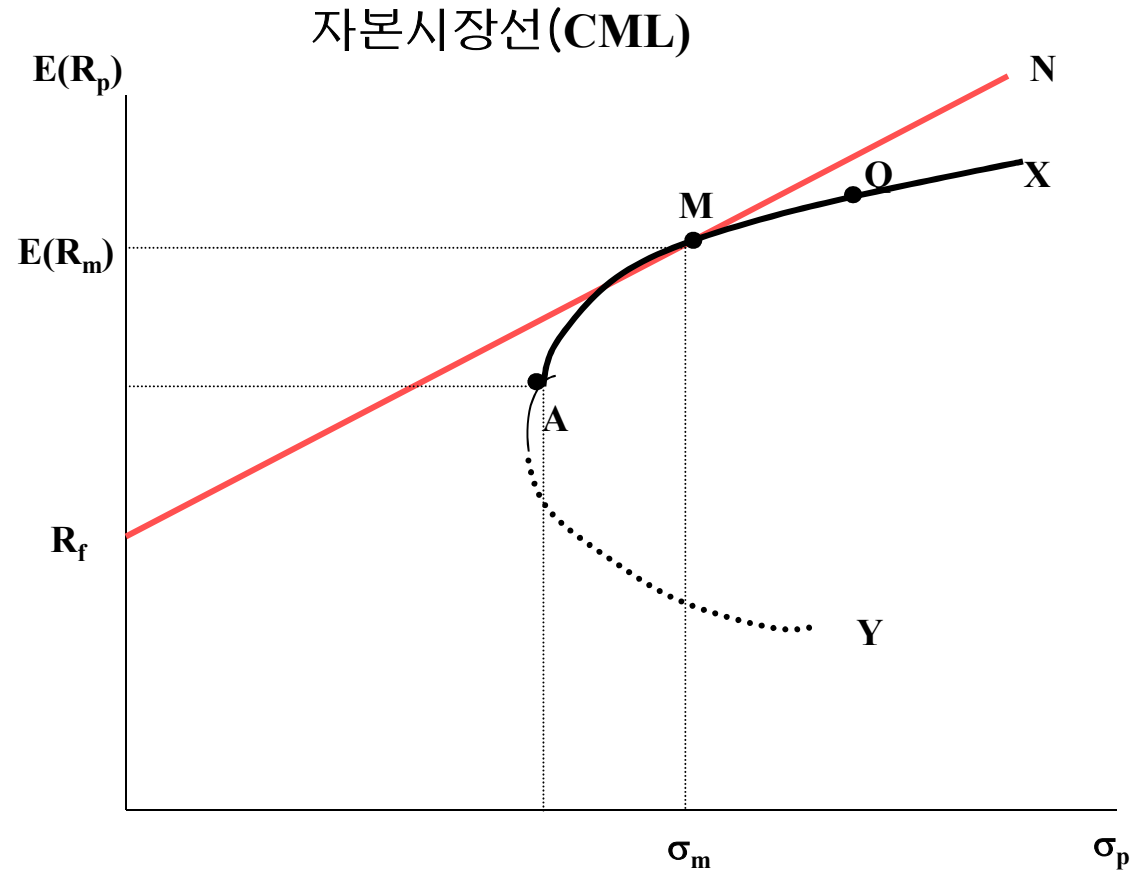
- ④ 무위험자산의 가정

- ⑤ 균형시장의 존재의 가정

- **CAPM** : CML (Capital market line 자본시장선)
SML (Security market line 증권시장선)
-

(2) 자본시장선 (CML: Capital market line)

- (무위험자산)도 포함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선



- “M” (Market Portfolio)

- ① 위험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효율적
($RVAR = [E(R_p) - R_f] / \sigma_p$ 이 극대화)
- ② 위험선호도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의 선호대상
(Tobin의 분리이론: 투자자마다 다른 것은 두 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 ③ (모든) 종목 포함
($w_i =$ 개별자산 시가총액 / 시장전체 시가총액)
- ④ (완전) 분산투자
- ⑤ 대용치 : (종합주가지수)

- 자본시장선(CML)

- (무위험자산)도 포함시킬 경우 균형된 자본시장에서
(완전분산투자)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위험의
선형적 관계를 표시

$$E(R_p) = R_f + \frac{E(R_m) - R_f}{\sigma_m} \sigma_p$$

(3) 증권시장선 (SML: Security market line)

* 의미 : (비효율적) Portfolio까지 포함한 경우의
기대수익과 위험의 선형적 관계

1) 증권특성선과 체계적 위험

$$\sigma_p^2 = \sum \sum w_i w_j \sigma_{ij} = \sum_{(i=j)} w_i^2 \sigma_i^2 + \sum \sum_{(i \neq j)} w_i w_j \sigma_{ij}$$

개별종목 고유위험

타종목과의 공분산 위험
[시장위험]

개별증권 가격변동 = 시장전체(공통요인)에 연동된 가격변동 + 개별기업 특유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R_{jt} = \alpha_j + \beta_j R_{mt} + \varepsilon_{j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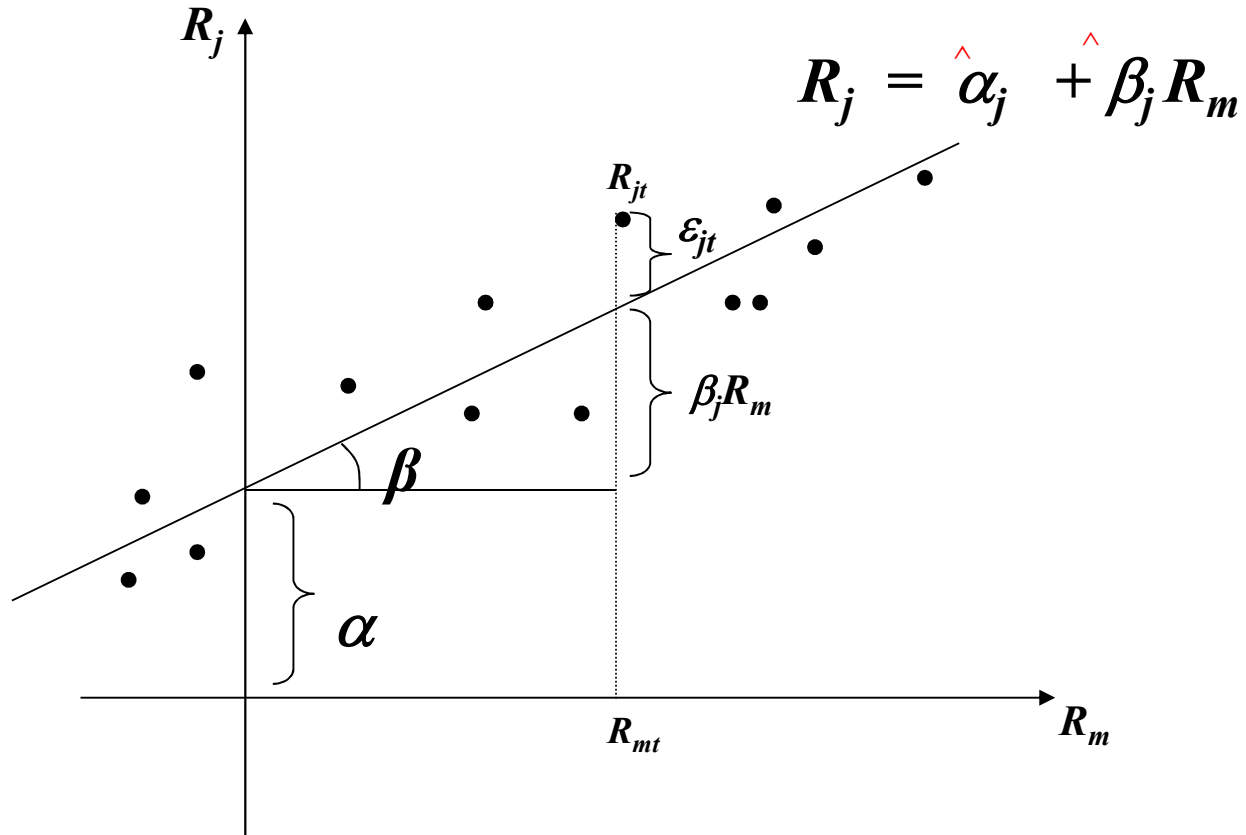
단, R_{jt} : t 시점에서의 자산 j 의 수익률(확률변수)

R_{mt} : t 시점에서의 시장지표의 수익률(확률변수)

α_j : 회귀계수 절편

β_j : 회귀계수 기울기, ε_{jt} : 잔차항(확률변수)

증권특성선(CL: characteristic line)



- 회귀계수 β , α 은 증권의 특성을 나타냄
→ (증권특성선 CL: Characteristic Line)

β_j : 시장전체 움직임에 대한 (**평균적 민감도**)

$$\beta_j = 1.0 \quad \beta_j > 1.0 \quad \beta_j < 1.0$$

- 시장위험의 정도를 측정한 것

α_j : 초과수익

ε_{jt} : 개별기업 고유사건에 의한 잔차수익률

➤ 베타계수와 잔차분산의 추정

$$\hat{\beta}_j = \frac{\sum [R_{jt} - E(R_j)] [R_{mt} - E(R_m)]}{\sum [R_{mt} - E(R_m)]^2} = \frac{Cov(R_j, R_m)}{\sigma^2(R_m)}$$

$$\hat{\alpha}_j = \bar{R}_j - \hat{\beta}_j \bar{R}_m$$

$$\varepsilon_{jt} = R_{jt} - \hat{R}_{jt} = R_{jt} - \hat{\alpha}_{jt} - \hat{\beta}_{jt} R_{mt}$$

[예제] 증권특성선과 베타계수의 추정

일 자	현대자동차	하이트맥주	KOSPI
2010.01.31	0.276	0.077	0.203
2010.02.28	0.003	0.134	- 0.067
2010.03.30	0.072	- 0.011	- 0.100
2010.04.30	0.180	0.016	0.098
2010.05.31	0.204	0.112	0.059
2010.06.29	0.114	- 0.130	- 0.028
2010.07.31	- 0.250	- 0.032	- 0.094
2010.08.31	- 0.035	0.076	0.007
2010.09.28	- 0.237	0.014	- 0.128
2010.10.31	0.214	0.011	0.114
2010.11.30	0.200	0.091	0.180
2010.12.28	0.057	0.044	0.075

풀이

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하이트맥주	KOSPI
기대수익률	6.7%	3.4%	2.7%
표준편차	17.2	7.2	11.2

i) 현대자동차와 KOSPI의 공분산

$$\sigma_{jm} = [(0.276 - 0.067)(0.203 - 0.027) + (0.003 - 0.067)(-0.067 - 0.027) + \dots] \\ \div 12 = 0.014347$$

∴ 현대자동차의 β계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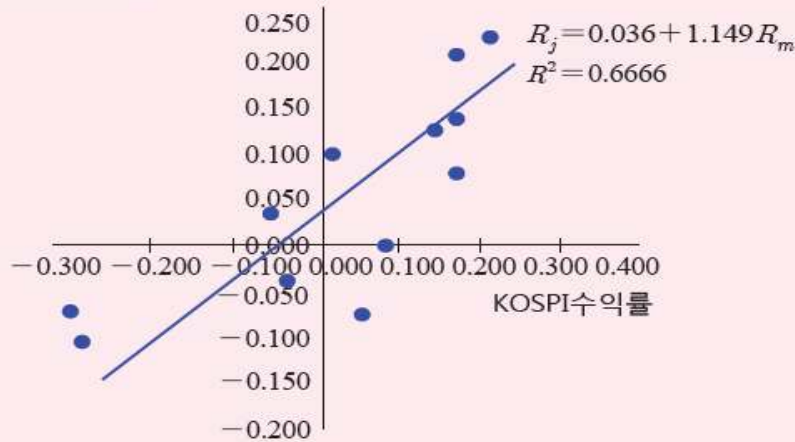
$$\beta_j = \frac{\sigma_{jm}}{\sigma_m^2} = \frac{0.01435}{0.01249} = 1.149$$

ii) $\alpha_j = 0.067 - 1.149(0.027) = 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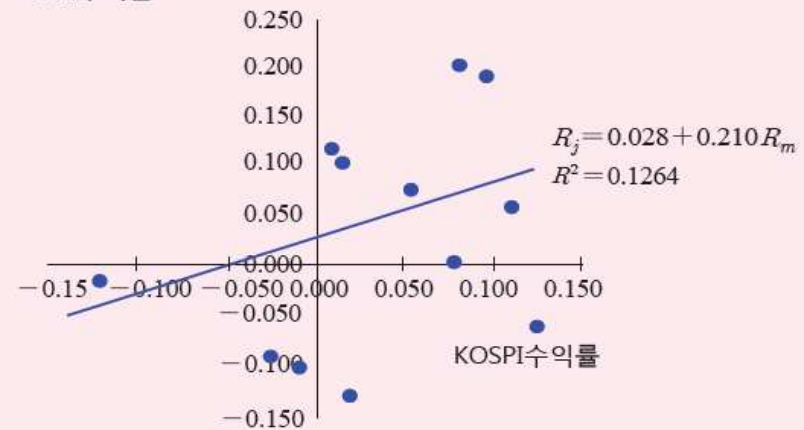
따라서 증권특성선은 $R_j = 0.036 + 1.149R_m$

현대자동차의 β계수가 1.149라는 것은 시장수익률이 10% 증감할 때, 현대자동차의 투자수익률은 평균적으로 11.49%만큼 증감하는, 공격적 증권의 성향이 있음을 뜻한다.

현대자동차
증권수익률



하이트맥주
증권수익률



②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하이트맥주에 대하여 추정하면

i) 하이트맥주와 KOSPI의 공분산 $\sigma_{jm} = 0.00263$

∴ 하이트맥주의 β 계수 :

$$\beta_j = \frac{\sigma_{jm}}{\sigma_m^2} = \frac{0.00263}{0.01249} = 0.210$$

ii) $\alpha_j = 0.034 - 0.210(0.027) = 0.028$

따라서 증권특성선은 $R_j = 0.028 + 0.210R_m$

하이트맥주의 β 계수가 0.210이라는 것은 시장수익률이 10% 증감할 때, 하이트맥주의 투자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1%만큼 증감하는, 방어적 증권의 성향이 있음을 뜻한다.

2)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sigma_j^2 = E[R_j - E(R_j)]^2$$

$$R_{jt} = \alpha_j + \beta_j R_{mt} + \varepsilon_{jt}$$

$$E(R_j) = \alpha_j + \beta_j E(R_{mt})$$

$$\sigma_j^2 = \beta_j^2 \sigma_m^2 + \sigma^2(\varepsilon_j)$$

$$\begin{aligned} \text{총위험} &= \text{분산불능위험} + \text{분산가능위험} \\ & \quad \text{(체계적위험)} \quad \text{(비체계적위험)} \end{aligned}$$

$$\sigma_p^2 = \beta_p^2 \sigma_m^2 + \sigma^2(\varepsilon_p)$$

$$\beta_p = \sum W_j \beta_j$$

$$\sigma^2(\varepsilon_p) = \sum W_j^2 \sigma^2(\varepsilon_j)$$

⇒ 개별증권의 위험 중에서 체계적 위험만이 중요
[β 위험]

3) 증권시장선 (SML)의 도출

: (비효율적) Portfolio까지 포함한 경우의 기대수익과 위험의 선형적 관계

- 개별증권의 위험

: 효율적 Portfolio(시장포트폴리오)분산에 대한 개별증권의 기여도

$$\sigma^2_p = \beta_p^2 \sigma^2_m + \sigma^2(\varepsilon_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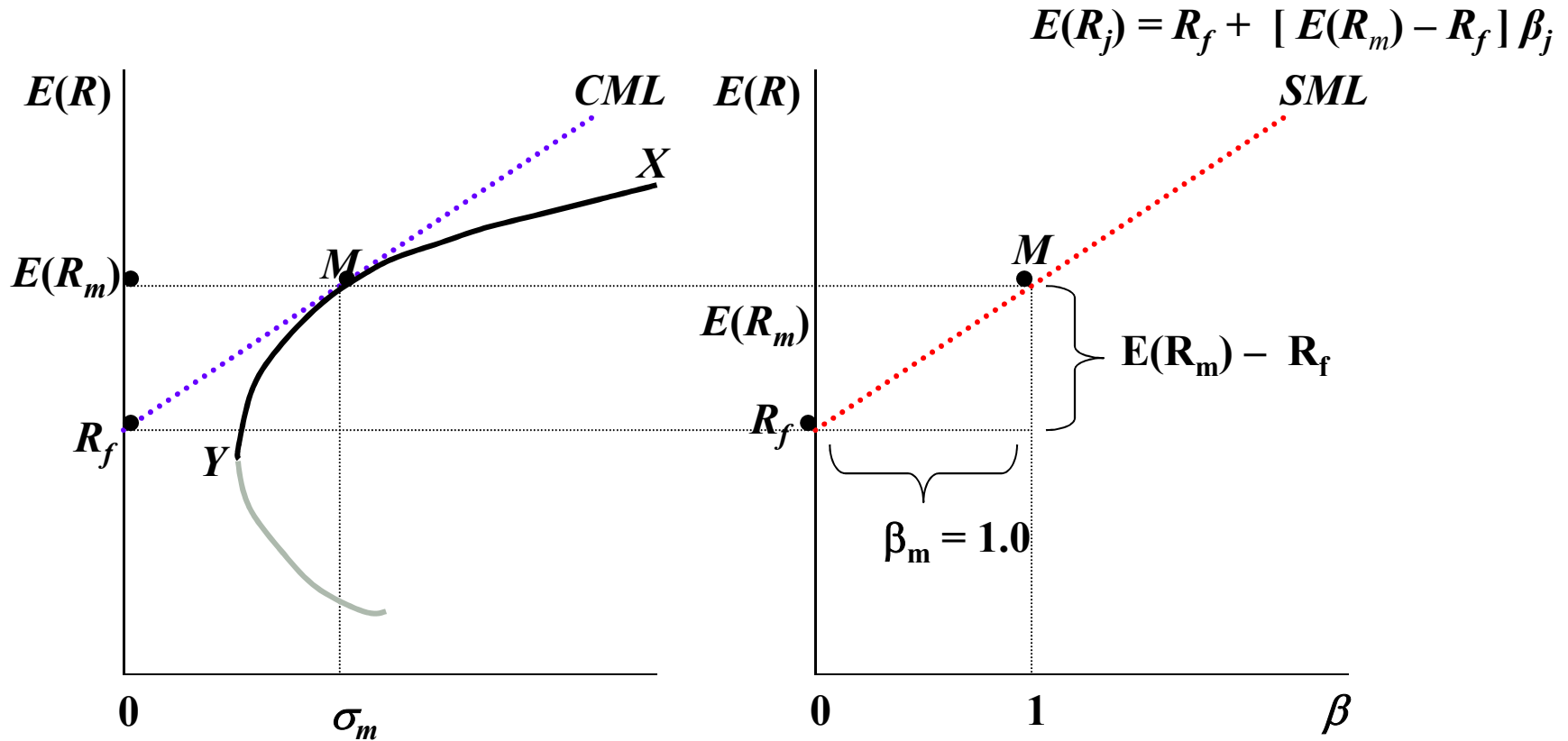
$$\begin{aligned} * \text{총위험} &= (\text{체계적위험}) + (\text{비체계적위험}) \\ &= \text{분산불능위험} + \text{분산가능위험} \end{aligned}$$

주식 j 가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율

$$= \frac{w_j \sigma_{jm}}{\sigma^2_m} = w_j \frac{\sigma_{jm}}{\sigma^2_m} = w_j \cdot \beta_j \quad \beta = \frac{\sigma_{jm}}{\sigma^2_m}$$

$$\rightarrow \text{개별증권의 위험} = \beta \text{ 위험} \quad \sigma_{jm} \text{ (공분산 위험)}$$

* 증권시장선: β 와 기대수익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 것.



[무위험자산 $(0, R_f)$, 시장포트폴리오 $(1, E(R_m))$]

(a) 자본시장선(CML)

(b) 증권시장선(SML)

$$SML : E(R_j) = R_f + [E(R_m) - R_f] \beta_j$$

함 축

- ① (체계적위험) 만이 적절한 위험
 - ② 기대수익과 β 와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
-

(4) CML과 SML의 비교

CML	$E(R), (\sigma)$ 공간에 표시, (효율적) 포트폴리오
SML	$E(R), (\beta)$ 공간에 표시, (비효율적) 포트폴리오까지

• 주식 A : $\sigma_A = 25\%$ $\sigma_A^2 = 0.0625$ $\beta_A = 1.2$

주식 B : $\sigma_B = 14.4\%$ $\sigma_B^2 = 0.020736$ $\beta_B = 1.2$

$E(R_m) = 12\%$, $\sigma_m = 12\%$, $\sigma_m^2 = 0.0144$, $R_f = 7\%$

	요 구 수 익 른	위 험
A	$k_A = 0.07 + (0.12 - 0.07) (1.2) = 0.13$	$0.0625 = (1.2)^2 (0.0144) + 0.0418$
B	$k_B = 0.07 + (0.12 - 0.07) (1.2) = 0.13$	$0.02074 = (1.2)^2 (0.0144) + 0.0000$

➤ CML ($E(R)$, σ 공간) 에서의 개별주식의 위치와 등 베타선

• (베타) 가 동일하면 (동일한) 수평선상 (요구수익률) 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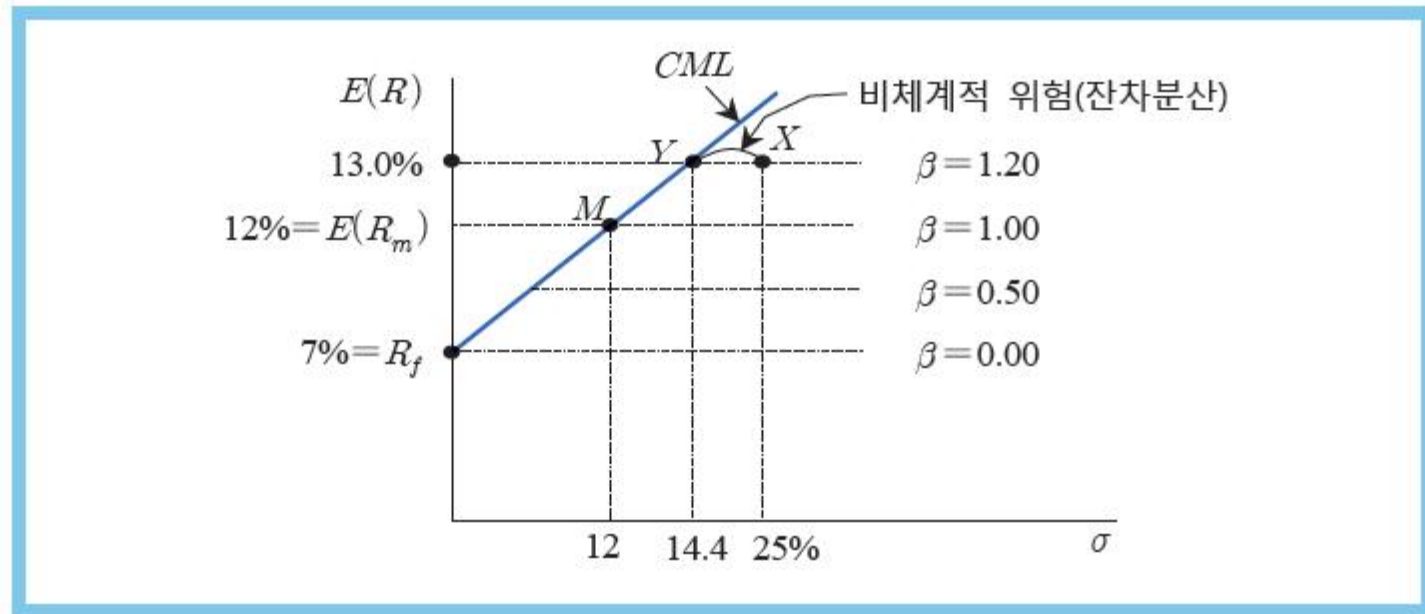
➔ 등베타선 (iso-beta line)

□ 잔차분산 = 0 인 경우 : CML 상에 위치함

□ 잔차분산 > 0 인 경우 : CML의 우측에 위치함

그림 8-5

CML과 SML의
관계



2. 위험투자안에 대한 투자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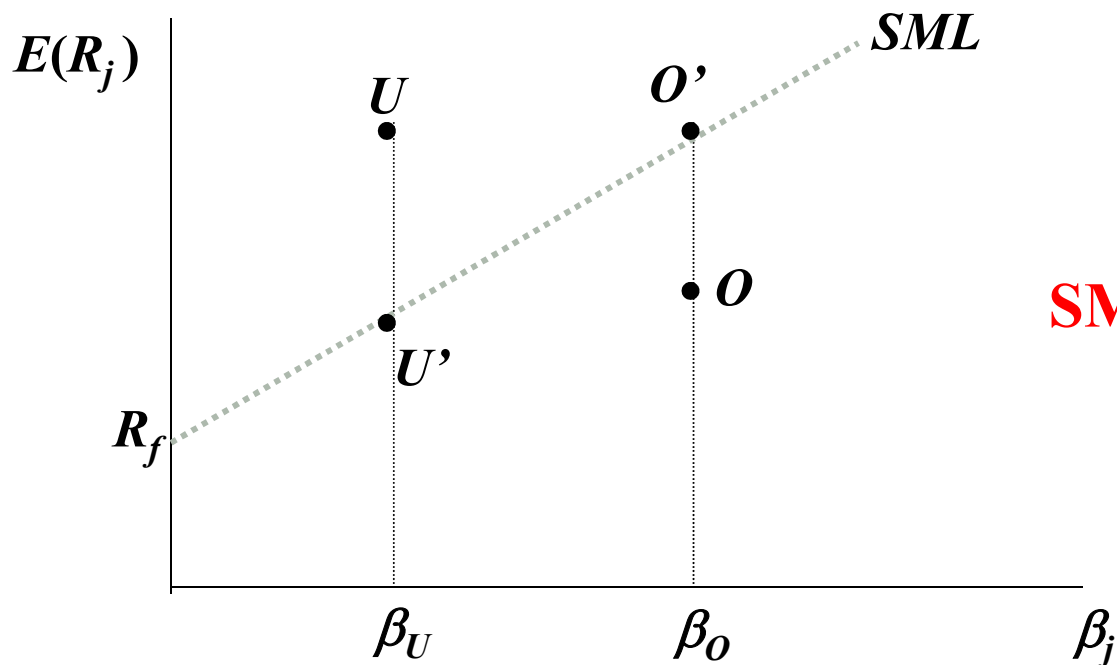
(1) 투자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투자위험의 형태

총위험 = 체계적 위험 + 비체계적 위험

- 분산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경영자나 기업주 → 총위험
- 정상적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 체계적 위험

(2) 위험하의 자본예산

증권시장선과 균형가격의 형성



$$E(R_j) = R_f + [E(R_m) - R_f] \cdot \beta_j$$

SML → 균형상태의 기대수익률
주주요구수익률(k),
자기자본비용(k_e)

< SML을 이용한 위험투자안 평가방법 >

- 투자자금을 자기자본으로만 조달함을 가정
- 투자안의 요구수익률(k) < 예상 투자수익률($E(R)$) → 채택
- 투자안의 요구수익률(k) > 예상 투자수익률($E(R)$) → 기각

[예제]

부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주)엔젤전자에서는 기존의 TV생산라인을 확장하여 LED, 냉장고, 휴대폰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 중이다. 다음은 이들 제품라인과 시장관계자료이다.

구분	TV	LED	냉장고	휴대폰
예상수익률	0.24	0.22	0.15	0.18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	0.8	0.6	0.5	0.3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E(R_m) = 0.2$, 분산 $\sigma^2 = 0.5$, 무위험이자율 $R_f = 0.1$

- (1)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순서로 투자를 선택할 것인가?
- (2) 증권시장선(*SML*)식을 제시하라.
- (3) 각 투자사업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계산하고, 수익성에 문제 있는 투자사업을 지적하라.

[풀이]

- (1) 투자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의 예상수익률 (IRR)이 높은 순서대로, 즉 TV, VCR, 냉장고, Audio 순으로 투자안을 선택한다.
- (2) $SML : E(R_j) = R_f + [E(R_m) - R_f] \cdot \beta_j$
 $= 0.1 + (0.2 - 0.1) \beta_j = 0.1 + 0.1 \beta_j$
- (3) 각 투자사업의 요구수익률은 위의 SML에 베타계수를 계산하여 추정. 과대·과소 여부의 판단은
 요구수익률(k) < 예상 투자수익률($E(R)$) \Rightarrow 채택
 요구수익률(k) > 예상 투자수익률($E(R)$) \Rightarrow 기각

투자사업	베타계수(β_j)	요구수익률	예상수익률	과대/과소 평가여부
TV(A)	$\frac{0.8}{0.5} = 1.6$	$0.1 + 0.1(1.6) = 26\%$	24%	2% 과대평가
LED(B)	$\frac{0.6}{0.5} = 1.2$	$0.1 + 0.1(1.2) = 22\%$	22%	0% 균형수익
냉장고(C)	$\frac{0.5}{0.5} = 1.0$	$0.1 + 0.1(1.0) = 20\%$	15%	5% 과대평가
휴대폰(D)	$\frac{0.3}{0.5} = 0.6$	$0.1 + 0.1(0.6) = 16\%$	18%	2% 과소평가

3. 차익가격결정이론(APT)

(1) 차익거래결정모형의 특징과 요인모형

- **CAPM** : (단일) 공통요인인 (시장포트폴리오)와의 민감도 (체계적 위험)의 선형함수

시장포트폴리오의 대용지수가 효율적이면 수학적으로 항상 성립.

그러나 **true portfolio** 관찰은 불가능 : **CAPM** 검증 가능성에 대한 회의
1976년 **S.A Ross**에 의해 **APT** 제시됨

- **APT** : (다수) 공통요인에 대한 민감도 (체계적위험)의 선형함수

1) 차익거래결정모형의 특징

- ① 균형상태에서는
추가 위험부담 없이 (초과수익) 획득이 불가능
- ② (잘 분산투자된) 포트폴리오 구성 (*cf*, 시장포트폴리오)
- ③ (다수) 공통요인과의 선형관계 (*cf* : 단일공통요인)

2) 차익거래

- 일 물 일 가 의 법칙 (**law of one price**)
- 零 의 순투자 (**zero investment portfolio**)
- 차익거래(재정)포트폴리오 (**arbitrage portfolio**)
: 零 의 (순투자), (체계적위험)이 零 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초과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안
- 차익거래 포트폴리오 구성의 예

3) 요인모형

$$R_j = E(R_j) + U_j \quad (1)$$

$$R_j = E(R_j) + S_j + j \quad (2)$$

$$R_j = E(R_j) + \beta_j F + j \quad (3)$$

$$R_j = E(R_j) + \beta_{j1}F1 + \beta_{j2}F2 + \dots + \beta_{jk}F_k + j \quad (4)$$

단, $E(R_j)$: 주식 j 의 기대수익률

β_{jk} : 주식 j 수익률의 k 요인에 대한 베타계수

F_k : 공통요인 k 의 예상치 못한 변동, $k=1, 2, \dots, k$

($F_k \equiv$ 공통요인의 실현된 값 - 공통요인에 대한 기대값)

ε_j : 주식 j 의 기업고유요인에 기인하는 수익률 변동

(2) APT의 도출

- 증권 수익률의 움직임 : (다수 공통요인)의 선형함수(다요인 모형)로 표시

$$R_j = E(R_j) + \beta_{j1}F1 + \beta_{j2}F2 + \dots + \beta_{jk}F_k + j$$

- 증권 기대수익률

: 균형상태에서는 증권 j 수익률의 공통적인 (F_k)에 대한 민감도(β_{jk})의 선형함수로 표시

$$\begin{aligned} E(R_j) &= \lambda_0 + \lambda_1 \beta_{j1} + \lambda_2 \beta_{j2} + \dots + \lambda_k \beta_{jk} \\ &= R_f + [\delta_1 - R_f] \beta_{j1} + [\delta_2 - R_f] \beta_{j2} + \dots + [\delta_k - R_f] \beta_{jk} \end{aligned}$$

- 차익 포트폴리오의 구성

① $\sum_{j=1}^n w_j = 0$: 추가적 투자가 없다(no net investment).

② $\sum_{j=1}^n w_j \beta_{jk} = 0$: 추가적 위험부담 없다(no net risk).

③ $E(R_p) = \sum_{j=1}^n w_j E(R_j) = 0$: 초과기대수익률은 0 (no net return).

- $k = 2$ (2요인 모형의 경우)

$$R_j = \alpha_j + \beta_{j1} F_1 + \beta_{j2} F_2 + \varepsilon_j$$

$$E(R_j) = \alpha_j + \beta_{j1} F_1 + \beta_{j2} F_2$$

$$\sigma^2(R_j) = \beta_{j1}^2 F_1^2 + \beta_{j2}^2 F_2^2 + \varepsilon_j^2$$

-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면,
잔차분산 $\sigma^2(\varepsilon_p)$ 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체계적위험 β_{p1}, β_{p2} 만이 중요해진다.

▶ 균형상태에서 $E(R_p)$ 와 β_{p1}, β_{p2} 의 관계

⇒ 동일한 (β_k)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대수익률)이 성립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차익거래가 발생함

예제

무위험자산 $R_f = 6\%$, $\beta_{R_f} = 0$,

증권 A : $\beta_A = 1.2, E(R_A) = 12\%$ 증권 D : $\beta_D = 0.6, E(R_D) = 8\%$

$R_f(50\%) + A(50\%)$ 로 투자하여 포트폴리오 C를 구성하면

$$\beta_c = 0 \times (1/2) + 1.2 \times (1/2)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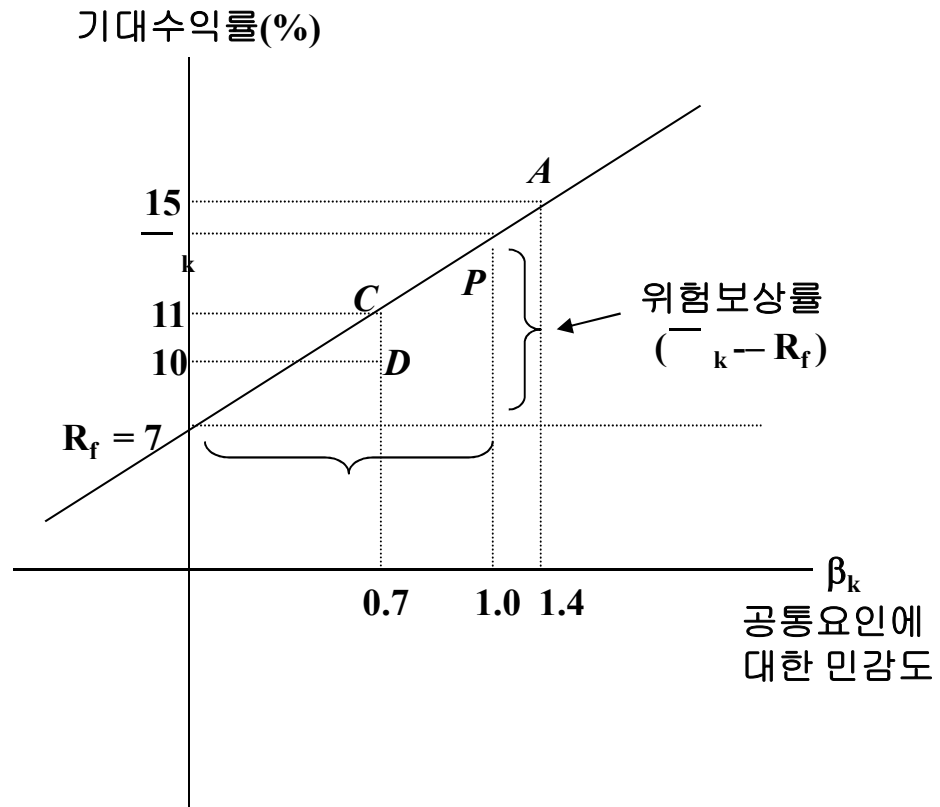
$$E(R_c) = 0.06 \times (1/2) + 0.12 \times (1/2) = 0.09$$

증권 D와 포트폴리오 C를 비교하면 동일 β 이지만

$$E(R_D) < E(R_C)$$

∴ D를 구매, 그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C에 투자하면
초과이익이 발생함

<그림> 기대수익률과 체계적위험과의 관계 : 차익거래기회



< APT 도출 과정 >

$$\frac{E(R_{A1}) - R_f}{\beta_{A1}} = \frac{E(R_{C1}) - R_f}{\beta_{C1}} = \frac{\bar{E}(R_{p1}) - R_f}{\beta_{p1}(1.0)} = \text{(상수)} \quad (1)$$

λ_k : k 공통요인 1단위의 체계적 위험(β)에 대한 위험보상률

$$E(R_p) = R_f + \beta_p \quad (2)$$

$$E(R_{Fk}) = R_f + \beta_k \quad (3)$$

$$\delta_k = R_f + \lambda_k, \quad \lambda_k = \delta_k - R_f \quad (4)$$

$$\begin{aligned} E(R_j) &= R_f + [\delta_1 - R_f] \beta_{j1} + [\delta_2 - R_f] \beta_{j2} + \dots + [\delta_k - R_f] \beta_{jk} \\ &= R_f + \lambda_1 \beta_{j1} + \lambda_2 \beta_{j2} + \dots + \lambda_k \beta_{jk} \\ &= R_f + \sum \lambda_k \beta_{jk} \quad (k = 1, 2, 3 \dots n) \end{aligned} \quad (5)$$

[예제 8-6] APT와 무위험차익거래방법

무위험이자율이 12%인 상황에서, 두 가지의 공통요인, GNP성장률(요인 1 : F_1)과 이자율(요인 2 : F_2)의 기대수익률이 각각 $E(R_{F1}) = 15\%$, $E(R_{F2}) = 17\%$ 이다.

한편 충분히 분산투자된 포트폴리오 P 가 있는데, 이를 두 공통요인 F_1 과 F_2 에 대한 베타계수가 각각 $\beta_{p1} = 0.6$, $\beta_{p2} = 1.4$ 이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P 의 예상수익률이 17%이다.

- ① 요인포트폴리오 1, 2의 요인모형과 요인 1, 2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제시하라.
- ② 포트폴리오 P 의 요인모형과 포트폴리오 P 의 두 요인에 노출된 위험보상률의 합계를 구하라.
- ③ 균형상태에서의 포트폴리오 P 의 기대수익률을 구하라.

풀이

- ① 요인포트폴리오 1, 2의 요인모형과 요인 1, 2에 대한 위험보상률

$$\text{요인포트폴리오 1의 요인모형 : } R_{F1} = E(R_{F1}) + 1 \cdot F_1 = 0.15 + 1 \cdot F_1$$

$$\text{요인포트폴리오 2의 요인모형 : } R_{F2} = E(R_{F2}) + 1 \cdot F_2 = 0.17 + 1 \cdot F_2$$

$$\text{요인 1에 대한 위험보상률 : } \lambda_1 = E(R_{F1}) - R_f = 0.15 - 0.12 = 0.03$$

$$\text{요인 2에 대한 위험보상률 : } \lambda_2 = E(R_{F2}) - R_f = 0.17 - 0.12 = 0.05$$

- ② 포트폴리오 P 의 요인모형과 포트폴리오 P 에 대한 위험보상률

- 포트폴리오 P 의 요인모형 : $R_p = E(R_p) + 0.6F_1 + 1.4F_2$

- 공통요인 F_1 과 F_2 에 대해 1단위의 체계적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얻는 위험보상률은 각각 3%, 5%이므로 포트폴리오 위험보상률은 이 값에 베타값을 곱한 것의 합이 될 것임.

$$\lambda_1 \beta_{p1} + \lambda_2 \beta_{p2} = (0.03)(0.6) + (0.05)(1.4) = 0.018 + 0.07 = 0.088$$

- ③ 균형상태에서의 포트폴리오 P 의 기대수익률

$$E(R_p) = R_f + [E(R_{F1}) - R_f] \beta_{p1} + [E(R_{F2}) - R_f] \beta_{p2}$$

$$= R_f + \lambda_1 \beta_{p1} + \lambda_2 \beta_{p2} = 0.12 + (0.03)(0.6) + (0.05)(1.4) = 0.208$$



수고하셨습니다.

